



# 자꾸 생각이 나요

옥복연/성상담, 성교육전문가

저는 중3이구요 제 남자친구는 고이예요. 저랑은 이사가기전  
 동네 오빠였거든요. 서로 알고지낸지두..한 14년 정도는 됐을꺼에  
 요. 그런데 좀 멀리 살거든요, 연락은 물론 계속 하지만..만나는건..  
 한달에 한두번 정도 밖에 못만나는데... 사귀지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키스를 하는 도중에... 첨에는..그냥..가슴을 더듬  
 더듬 거리더라고요.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다음에는 손을 아예  
 집어넣어서 만지더라고요. 그런데 묘한건..그당시에는 그리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구 집에 가는 길에 계속 생각을 해보니  
 깐 오빠가 나한테 너무 맘대로 행동한거 같더라고요. 그때는 기만  
 히 있고 다 끝나서야 그런말을 해봤자 머 그럴꺼 같아서 그냥 아무  
 말도 안하다가 오늘 제가 얘기 했거든요. 기분 별로 안좋다구 하지  
 말라구 그런데 의외로 그냥 쉽게 알았다구 대답을 하더라고요. 안  
 본지 일주일 됐는데 갑자기 그때가 자꾸 생각이 나서 어떻게 보면  
 기대가 되기도 해요. 물론 성관계까지는 가지 않을꺼라구 저는 생  
 각하고있구요. 오빠두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려구 노력할텐데 다음  
 에 만났을 때 키스를 할 때 오빠가 더듬거리면 기만히 있을꺼 같은  
 데 그러구나서 또 기분이 나쁘지면 어떻게 해야할지 제 감정이 뭔  
 지를 모르겠어요. 좋았다가 나쁘다가 좀 정리좀 해주세요.

**질문** 아하는 사람과의 신체 접촉시 자신의 감정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많이 혼란스러  
 운 여학생이군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함께 오랫동안 있고 싶  
 고, 또 만지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  
 이겠지요.

그런데 이 좋아한다는 감정으로 하는 신체 접촉  
 이 처음에는 손을 잡고, 어깨를 맞닿고, 팔짱을 끼  
 고,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한참 성적으로 충동이 강한 시기에 한번 성충동  
 에 휩쓸리면 스스로 자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성관계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  
 지므로 단 한번뿐만이 아니라 계속 성관계를 하게  
 되지요.

점점 두 사람의 관계는 인간 관계보다는 성관계  
 를 위한 만남으로 변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성관계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  
 를 미리 막을 수  
 있도록 서로  
 가 신체 접  
 촉한계에 대  
 해 분명하게 선  
 을 그을 필요가 있  
 답니다.



OO님이 혼자 기  
 분나쁘게 생각하고  
 있다보면 상대는 아마도 OO님도 신체 접촉을 원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OO님이 허락하는 것이라  
 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지요.

홈페이지 "그림으로 보는 성지식"의 청소년기의  
 이성 교제 란에서 '이성교제, 이렇게 하자' 를 읽어  
 보세요.

어떠한 성적 행동도 OO님의 의사에 반하는 것  
 이라면 이는 거부할 수 있으며, 스스로, 혹은 두 사  
 람이 책임질 수 있는 신체 접촉의 한계에 대해 다  
 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더라도 서로 어색하지  
 않는 두 사람의 만남이 되시기 바랍니다.